

나나쿠라산

나나쿠라산은 1,300 년 넘게 지역의 신으로 숭배받아왔다. 지역 전설에 따르면 산은 잠자는 용이고, 7 개의 산봉우리는 용의 등에 있는 **골판**이라고 한다. 나나쿠라라는 말은 ‘일곱 개의 자리’를 뜻한다. 여기서 자리(座)라는 글자는 바위 발을 의미하는데, 다른 전설에서는 그 이름이 일본 신화에서 세계가 창조된 후 나타난 7 대 신들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. 산은 오늘날에도 후타쓰이의 일부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숭배받고 있다. 나나쿠라를 이루고 있는 산등성이는 요네시로강의 물길을 가르고 용머리 주위를 크게 굽이치고 있다.

1788 년 교토 대화재로 옛 도읍은 허허벌판이 되었다. 이때 아키타의 목재가 교토로 출하되어 재건에 사용되었다. 이에 따라 요네시로강 주변 원생림 대부분이 벌목되어서 후타쓰이 사람들은 나나쿠라산을 신성한 산으로 보호하기로 했다. 그 이후로 이 산의 많은 삼나무가 보호받고 있다. 그중에는 수령 300 년이 넘는 나무도 있으며, 산에는 여전히 이 지역의 정신적인 전통이 깊게 새겨져 있다.

산에는 삼나무 숲을 지나는 경로의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나 길의 폭이 좁아 호우가 쏟아진 후에 지날 때 위험할 수 있다. 나나쿠라산의 일곱 봉우리를 모신 신사는 마지막 산기슭의 강가를 따라 난 길의 끝에 있다.